

공판 마친 노소영 측 변호사

등록 2024.08.22 14:57:42



[서울=뉴스시스] 추상철 기자 =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에서 열린 '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상대 3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'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.

이날 법원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. 2024.08.22.
scchoo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